“염불선, 불조 경론 올곧게 계승”

청화사상硏, 4월 21일 제10차 학술세미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실상염불선의 진여자성과 불성광명은 대승경전에 근거한다. 대승불교의 정점에 있는 불성사상을 조사선의 본래 성불 사상으로 회통시키고 있다. 이로써 염불선은 불조의 정통정맥을 계승하고 있다.”

금타 스님과 청화 스님이 주창한 염불선이 불조의 경론을 올곧게 계승하고 있는 창조적이고 전통적인 수행법이라는 주장이 제시됐다.

조준호 고려대 철학연구소 연구교수는 4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실상염불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청화사상연구회 제10차 학술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청화 스님의 생전 법문을 분석하고 실상염불선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한 정통 정맥임을 밝혔다. 과조사들의 가르침을 관통하는 정통정맥임을 고찰했다.

조 교수는 청화 스님의 법문집인 〈원통불법의 요체〉와 〈정통선의 향훈〉을 재편집한 〈실상염불선〉에 수록된 법문 내 인용된 경론들을 조사했다. 그 결과 경전 36종 · 인도찬술 논서 10종 · 중국찬술 조사어록 32종 · 한국찬술 조사어록 3종 · 일본찬술 조사어록 1종 · 조사와 고승 49인 등 총 85종류의 인용을 보여준다.

조 교수에 따르면 성철 스님의 법문집 〈백일법문〉에는 약 80여 종의 경론이 인용되며, 성철 스님 법문이 혜능 이후 조사들의 어록이 많은 것과 달리 청화 스님 법문은 혜능 이전 조사들의 어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는 “짐작컨대 한국불교사에서 양대 선사에 의해 불교전적의 종류와 수가 가장 많이 인용된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청화사상연구회는 4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실상염불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10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청화 스님 생전 법문 분석
대 · 소승 36개 경전 인용해
“본래성불 · 불성광명 회통한
염불선, 창조적 사상의 계승”

그러면서 초기경전 · 대승불교 · 동아시아에서의 염불선의 위치를 분석했다. 조 교수는 “불조의 경론이야말로 실상염불선 법문의 소의경론”이라며 “청화 스님은 특정한 한 경전만을 중심으로 실상염불의 법문을 펼치기보다는 불조의 여러 경전을 실상염불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수렴하고 있다. 불교라는 큰 바다에서 선사가 던진 범망은 바로 실상염불”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상염불선의 법맥이 불조 석가모니 부처님을 시작으로 마명-용수-세친-달마-천태지의-도신-혜능-정중무상-종밀-금타-청화로 이어짐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청화 스님의 염불선은 올곧게 불조의 정통정맥을 계승하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단순한 전통 계승에만 머물지 않고 창조적인 회통을 보여준다. 대승불교의 보편적 가르침인 불성과 조사선에서 강조한 본래성불사상을 회통시킨 염불선은 한국불교사뿐만 아니라 세계불교사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앙승가대 외래교수 법상 스님은 발표 논문 ‘정토염불과 실상염불선’을 통해 정토종의 정토염불과 금타 · 청화 스님의 염불선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공통점 · 차이점을 분석했으며, 최종적으로 염불과 선은 하나임을 밝혔다.

주목! 학술서

〈원효의 화쟁철학〉

지금 언어 · 논리로 화쟁을 철학하다

원효 사상 전반에 대해 천착하고 있는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가 최근 내놓은 〈원효의 화쟁철학〉은 화쟁을 어떻게 구성됐으며, 논리적으로 이해할 것인가를 분석하고 있다. 체계적이면서 총론적인 분석 뒤에는 이 시대에서 화쟁을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과 제언이 이어진다. 궁극적으로 저자는 저서를 통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화쟁할 것 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것이다.

원효의 화쟁 논법의 구조에 대해 박 교수는 ‘문(門) 구분’과 ‘무(無) 실체 · 무(無)본질 관계의 세계를 드러내는 일심의 지평’, ‘언어에 대한 통찰’로 구성된다고 봤다. 세 축이 서로 힘을 보태면서 상이한 견해들의 충돌을 통섭적 관계로 만들어가는 게 ‘원효의 화쟁 논법’이라는 것이다.이 같은 분석을 바탕



으로 박 교수는 화쟁이 사회에 구현되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견해 주체들 간의 상호신뢰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고려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 ‘기울어진 운동장’ 해결에 대한 논설은 주목할만 하다. 애초 공정할 수 없고, 유불리가 명확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쟁론은 이뤄지지 어려운 부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박 교수는 쟁론 주체들에게 대한 ‘차별’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쟁론적 게임에서 화쟁적 태도를 선택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내하는 선택은 강자가 먼저 행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사회가 ‘절대화’가 아닌 ‘다면화’로 사유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한 박 교수는 종교계 역시 이 같은 전환에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성민 기자

보조사상연구원 ‘보조사상’ 50집 발간

보조사상연구원(원장 김호성)이 학술지 〈보조사상〉 50집을 발간했다.

〈보조사상〉50집에는 창립 30년을 맞은 보조사상연구원의 회고와 전망을 분석한 논문들이 특집으로 실렸다.

박보람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초빙교수가 ‘보조사상과 교학의 관계에 대한 연구 동향-화엄교학을 중심으로’를, 강호선 성신여대 교수가 ‘역사학에서 보조사상과 수선사 연구 30년’을, 김방룡 충남대 교수가 ‘30년간 보조 지눌의 선사상에 대한 연구동향과 앞으로의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또한 투고본문으로 △원효 〈금광명경소〉 집일의 현황과 그에 따른 비판적 검토(한명숙) △원효 이승인식과 성불론(조은순) △지눌의 원돈신해문과 선교결합의 마음수행(정혜정) △△자력과 타력의 양립문제-청허휴정의 〈선가귀감〉을 중심으로 등이 수록됐다.

김호성 보조사상연구원장은 “원장에 취임하며 지난해 3월부터 ‘학문후속세대 양상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면서 “앞으로 짧으면 3년, 길게는 5년 정도만 노력한다면 불교학계 전체를 위해서도 좋은 연구자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성보문화재, 국보 · 보물 지정 잇달아

관촉사 석조미륵입상 국보 지정
미륵사지 사리장엄구 보물 예고

불교 성보문화재들이 잇달아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와 보물로 잇달아 지정됐다. 은진미륵으로 알려진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입상은 국보로 지정됐으며, 지난 2009년 익산 미륵사지 서탑서 출토된 사리장엄구는 보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이제 개국공신교서’를 국보로,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를 비롯한 매장 · 환수문화재 1건과 전적, 불화 등 4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4월 25일 밝혔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2009년 익산 미륵사지 서탑 심주석의 사리공(舍利孔)과 기단부에서 발견됐다. 사리장엄구는 639년(백제 무왕 40년) 절대연대를 기록한 금제사리봉영기와 함께 금동사리외호 · 금제사리내호, 각종 구슬과 공양품을 담은 청동합(靑銅合) 6점으로 이뤄졌다.

‘금동사리외호 및 금제사리내호’는 모두 동체의 허리 부분을 돌려 여는 구조로, 동아시아 사리기 중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독창적인 구조로 주목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선의 흐름이 유려하고 양감과 문양의 생동감이 뛰어나 기형(器形)의 안정성과 함께 세련된 멋이 한껏 드러나 있다.


국보 제323호로 지정된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입상〈사진 왼쪽〉과 4월 25일 보물로 지정예고된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사진 오른쪽〉

‘금제사리봉영기’는 얇은 금판으로 만들어 앞 · 뒷면에 각각 11줄 총 193자가 새겨져 있다. 내용은 ‘좌평(佐平) 사택적덕(沙宅積德)의 딸인 백제 왕후가 재물을 시주해 사찰을 창건하고 기해년(639년)에 사리를 봉안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삼국유사〉를 통해 전해진 미륵사 창건설화를 넘어 구체적인 조성 연대와 주체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밝히게 된 계기가 돼 사리장엄구 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유물이기도 하다.

함께 보물로 지정예고된 호림박물관 소장 ‘지장시왕도’는 화기(畵記)에 의해 1580년(선조 13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화다. 주존(主尊)인 ‘지장보살과 무독귀왕, 도명존자’의 지장삼존(地藏三尊)을 중심으로 시왕, 제자들을 한 화폭에 뒀다. 화면은 다소 어두운 감이 있으나 색감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신체와 각종 의장물의 묘사가 매우 세밀하면서도 뛰어난 묘사력을 갖췄다.

이에 앞서 문화재청은 4월 20일 은진미륵으로 잘 알려진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을 국보 제323호로 지정했다. 국보 제323호로 지정된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고려 광종의 명으로 승려 조각장 혜명(慧明)이 주도해 조성됐으며 “파격적이고 대범한 미적 감각을 담고 있고 우리나라 불교신앙과 조각사에 있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보와 보물로 지정예고된 5건의 문화재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범종의 명가 성종사가 만들면
풍경(풍탁)도 작품이 됩니다

풍탁과 연꽃 풍경 모두 대·중·소 3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람판도 물고기, 연꽃, 구름 3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선택 가능 합니다.



특징
❶ 체인이 동재질이 아닌 스텐레스 재질로 되어 있어 강도와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❷ 바람판이 두꺼운 황동재질로 되어 있어 견고하고 바람에 덜 흔들려 소리가 은은합니다.
❸ 바람판과 풍경의 디자인이 세련되고 아름답습니다.
❹ 바람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람판 : 물고기, 연꽃, 구름)

견고하고 아름답고
소리 좋은 풍경(풍탁)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바람에 강하고 아름다운
최고급 명품 풍경(풍탁)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장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습지길 35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이제 처마에도 연꽃을 달자!


연꽃 풍경

1) 황금컬러
2) 무늬
3) 민무늬 3종

구입문의
성종사
☎ 02)733-6141